성경적 구원의 길 세미나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루터 신학 vs 웨슬리 신학

일시 : 2022년 1월 24일 오전 10시
장소 : 춘천 동원감리교회
강사 : 장기영 박사(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B.A. / M.Div. / Th.M.), 미국 애즈버리 신학대학원(M.A.),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Ph.D., 웨슬리 신학 전공), 현 서울신학대학교 외래교수. **저서** :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 루터 신학 vs 웨슬리 신학」(부천: 웨슬리 르네상스, 2019). **역서** : 케네스 콜린스, 「 성경적 구원의 길 : 존 웨슬리 신학의 정수」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토머스 C. 오든,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시리즈(총 4권) - 1권 “하나님과 섭리” (장기영 역), 2권 “그리스도와 구원”(장기영 역), 3권 “목회신학”(장여결 역), 4권 “윤리와 사회”(장성결 역) (부천: 웨슬리 르네상스, 2020-2021)

■ 들어가는 말

올해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가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존경하고 해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점 타락해 죄인의 구미에 맞는 종교로 변질되었을 때, 루터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의 타락을 폭로하고 참된 기독교의 회복을 외쳤기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는 종교개혁자의 후예다. 그런데 종교개혁 정신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면이 많다. 김세윤 교수는 한국 개신교가 “구원파적 복음”에 빠져있다고 비판하고, 김영한 교수는 한국 개신교인이 “죄인의 칭의가 아닌 죄의 칭의”를 말하는 오류에 빠졌음을 지적하며, 신광은 박사는 한국 개신교인의 신학은 죄인의 구미에 맞게 여러 신학을 뒤섞어 성화를 제거한 신학이라고 분석한다. 필자는 이런 말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즉, 중세 가톨릭은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지옥의 공포를 심어주어, 심지어 많은 귀족과 왕들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죄를 씻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 고행의 삶을 살게 하고, 지독히 가난한 사람들도 면죄부를 사는 데 전 재산을

바치게 만들었다. 중세 가톨릭이 매우 타락했지만 적어도 지옥을 믿게 하고 죄를 두려워하게 한 점에서 성경의 일부 진리는 잘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개신교는 중세 가톨릭보다 못한 상태에 빠져 수도원 생활이나 면죄부도 필요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지옥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괴이한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때에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해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웨슬리안 교단들이 하나님께서 개신교 내에 웨슬리와 그의 후예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와 웨슬리 신학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노력을 계속하는 일은, 오늘의 교회를 복음과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16세기 상황에서 중세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 신학의 장점과 기독교계 전체에 끼친 크나큰 공로를 인정한다.[1] 그러나 **이 논문은 루터 신학에 어떤 한계와 약점이 있는지를 솔직히 드러내면서, 그런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는 어떤 특징과 장점이 웨슬리 신학에 있는지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2]

I.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실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과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 가톨릭의 신학과 실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단락에서는 중세 가톨릭 신학의 토대인 어거스틴, 전성기인 토마스 아퀴나스, 수확물이라 할 수 있는 가브리엘 비엘의 신학을 중심으로 중세 가톨릭 신학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7성례를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의 실천을 정리함으로, 종교개혁의 배경으로서 중세 가톨릭을 이해하고자 한다.

---

1. 루터 신학의 장점과 개신교 신학에 끼친 긍정적 영향을 다룬 필자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장기영, “인간의 죄에 대한 제어로서 하나님의 숨어계심: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의 현대적 적용”,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4호(2016), 67-108; 장기영, “루터의 성화의 장치: 한국 개신교의 종교개혁 메시지 왜곡에 대한 종교개혁자의 교정”,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7호(2017), 245-283; 장기영, “‘구원받은 신자는 창조세계를 선물로 받는다’: 루터의 창조세계 긍정과 신자의 일상적 삶의 책임”, 한국교회사학회지 제50호(2018), 7-42.

2. 이 글은 필자의 저서, 장기영,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루터 신학 vs 웨슬리 신학』 (부천: 웨슬리르네상스, 2019)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지면의 제한을 고려해 다른 각주는 생략하기로 한다.

1.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신학

어거스틴(St. Augustine, 354~430)의 신학은 중세 신학의 토대이자, 중세 전체 기간을 지배한 신학이다. 그의 신학은 구원에 대한 양면적 이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원천으로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제거하지 않고 변화시키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할 필요를 함께 가르쳤다. 어거스틴의 신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 우리가 의지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면 …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협력하신다"라는 말에 잘 요약되어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중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꼽히고, 그의 신학은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로마 가톨릭교회 "신학의 표준"으로 확증되었다. 그는 구원을 의롭지 못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과정 전체로 설명하면서, 비록 구원은 신앙과 함께 시작되지만, 신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다. 즉, 신앙은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소원을 갖게 하는 정도의 지적인 활동일 뿐이어서 신앙으로는 실제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불완전한 회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완전한 회심은 사랑을 통해 인간의 의지적 행위가 더해질 때 이루어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첫 번째 원인이 된다면, 인간의 행위의 공로는 두 번째 원인이 되고, 따라서 믿음만이 아닌 인간의 사랑의 행위가 구원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중세 신학의 수확물" 또는 "마지막 스콜라 신학자"로 꼽히는 가브리엘 비엘(Gabriel Biel, 1420~1495)은 구원에서 인간의 행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순수하게 자연적인 능력만으로도" 즉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죄를 피할 수 있으며, 자유의지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다. 비엘은 그리스도의 공로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원인이 아니며, "만약 우리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는 구원에 무가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중세 가톨릭 신학의 전개 방향을 요약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모두에 대한 양면적 강조점을 지닌 어거스틴의 신학적 유산을 물려받고도, 점차 구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보다 인간의 행위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신학을 발전시켰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신학은 전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화 되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의 구원을 가르치는 인간중심적 종교가 되어 있었다.

2.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실천

중세 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가톨릭교회의 사제가 베푸는 일곱 가지 성례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1) 세례성사 타고난 원죄를 씻는다. 따라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2) 견진성사 세례 이후에 지은 죄를 씻는다. 또한 마귀를 이길 힘이 없으면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성령을 받게 하고 마귀를 이길 힘을 부여한다.

(3) 성체성사(미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효력은 그분을 믿는다고 적용되지 않고, 사제가 집례하는 미사에서 떡과 잔을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돼 죄 용서를 받는다.

(4) 고해성사 성체성사 이후 지은 죄는 사제에게 고해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 사제는 하늘의 공로창고에 저장된 그리스도 및 성인들의 잉여 공로로 죄값을 보상해 대죄를 소죄로 바꾼 후, 소죄는 기도, 봉사, 헌금 등 여러 보속 행위를 통해 용서한다.

(5) 혼례성사 거룩한 결혼이 되고 거룩한 자녀가 태어나게 한다(↔마귀의 가정, 마귀의 자녀)

(6) 종부성사 죽기 직전에 다시 사제의 용서로 죄를 씻어 지옥 또는 연옥을 면하게 한다.

(7) 신품성사 사제들만이 받는 성사로, 다른 성례를 베풀 권한을 부여한다.

가톨릭 교회의 7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신자들을 죄 아래 묶어 두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제들이 앉고 죄를 용서하고, 믿음 대신 성례에 참여해야 함을 가르쳐 가톨릭의 조직을 의존하게 하였다.

요약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춘 채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방법으로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제들이 앉아 그리스도보다 자신들을 의존하게 했으며, 믿음이 아닌 7성례 참여를 실질적 구원의 방법으로 가르쳤다.

II.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

로마 가톨릭교회가 부추긴 지옥의 공포 속에서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다. 다음은 루터 자신의 고백이다.

> 나는 성실한 수도사였다. 종단의 규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던지, 만약에 수도생활로 수도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일 거라고 자화자찬까지 늘어놓았을 정도였다. 그 때 나와 함께 수도원에 있었던 형제들은 이 사실이 정말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만약 내가 수도생활을 계속했더라면 철야, 기도, 독서 그리고 다른 일들로 나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고해 신부 슈타우피츠의 권면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수로서 성경을 강해(1513년 8월 1일 시편강의 시작, 1515년 가을 로마서 강의, 1516-1517년 갈라디아서 강의)한 루터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적 진리를 감추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제들이 앉아 높임을 받고, 복음 대신 율법을, 믿음 대신 인간의 행위, 구원 대신 지옥형벌을 가르쳐 공포심으로 사람들을 좌우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인간을 우상화 하는 로마 가톨릭의 인간중심적 종교에 반대해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면서, 기독교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믿음 중심의 신중심적 기독교로 회복시키고자 했다.

1. 율법관

율법이 인간에게 허용된 영역과 허용되지 않는 영역을 구분하는 울타리라면, 죄는 허용된 영역에서 살아야 할 인간이 울타리를 넘어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심지어 가장 거룩한 신자라도 넘어서는 안 될 울타리를 넘어 금지된 영역에서 살고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정죄한다.” 율법은 결코 인간이 스스로의 의로움을 입증하거나 구원의 공로를 쌓는 방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함을 알려준다.

2. 신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 정반대된 것에서 반대된 것을 창조하신다. 즉, 죄인을 의롭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거나, 그 반대로 행하신다. 죄인의 구원은 이처럼 인간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사역이다.

이러한 구원사역의 원천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사람들은 인간적 사랑의 개념(헬라적인 획득적 사랑 Eros, 히브리적인 공로적 사랑 Nomos)에 매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대상에 의해 생겨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기뻐하는 대상을 발견하지 않고 창조한다.” 따라서 “죄인은 자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은 결코 인간이 선행과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감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려오심, 즉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하향적 사랑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바른 자세는 제1계명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루터의 가장 분명한 주장은 이중예정론에서 나타난다. 루터는 창세 전, 인간이 태어나 선과 악, 심지어 신앙과 불신앙 중 어떤 삶을 택할지 전혀 고려하시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거나 유기하셨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행위에 의한 공로사상이 기독교에 전혀 개입되지 못하게 했다.

3. 기독론

결혼을 하면 신랑의 것은 신부의 것이 되고, 신부의 것은 신랑의 것이 된다. 이처럼 신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면, 신자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움은 신자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구원은 죄인이 선행과 공로를 쌓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 “행복한 교환” 또는 이중전가를 통해, 즉 신자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됨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신자에게 전가됨으로 이루어진다. 신자라도 죄인인 이상, 성화 역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전가로만 가능하지, 신자 자신의 불완전한 의에 기초할 수 없다.

4. 성령론

죄인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율법과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을 뿐이다. 성령의 조명 없이 인간은 단지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훌륭한 위인으로만 생각할 뿐 복음 역시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율법은 죄인을 깨뜨리는 천둥 번개와 쇠망치가 되고, 복음은 나를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다.

성화에서의 성령의 사역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신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정죄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이 때 성령은 신자가 율법의 정죄를 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음을 일깨워 주심으로 신자를 위로하신다. 이처럼 루터에게서 구원과 성화 모두는 신자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도우시고 복음으로 위로하시는 성령께 의존한다. 성령 없이는 인간에게 어떤 깨달음과 변화도 불가능하다.

5. 구원론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수용하는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신앙은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즉 인격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율법의 성취,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 세상과 육체와 지옥을 이김” 등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구원과 변화된 삶 모두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간의 행위는 불완전할 뿐이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간의 사랑은 약하고 죄로 오염되어 사람을 의롭게 할 만큼 순수하지도, 충분히 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에 대한 적극적인 강조 및 인간의 사랑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루터 신학의 신 중심성의 구원론적 표현이다.

6. 인간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이 죄로 가득하다 (2) 한 사람 속을 들여다보아도 죄로 오염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다 (3) 죄는 인간을 사탄의 지배 아래 종속시켰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노예 된 존재다.

심지어 신자라도 이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기에, 신자는 이 세상에서 세 가지 모순된 상태로 살아간다. (1)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지만 자신의 본성으로는 죄인일 뿐이다. (2) 미래에 의롭다 하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의롭지만, 실제로는 죄가 가득하다. (3) 성령이 신자의 의지를 다스릴 때는 의롭지만, 자신의 의지로는 죄의 노예일 뿐이다. 따라서 신자의 의로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가능할 뿐이며, 신자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는 언제나 죄의 노예일 뿐이다.

이처럼 신자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주된 장소는 신자의 양심이다. 신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기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복음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루터는 만약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양심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라고 가르치면, 그것이 공로사상으로 연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시는 주된 장소를 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루터는 성령께서 신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구원의 공로를 쌓는다는 생각을 피하게 하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죄에 넘어지게 하심으로 교만할 수 없게 하고 겸손케 하신다고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결이 불가능하게 하신 이유는 죄인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7. 루터 신학의 특징과 한계, 단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루터의 신학은 인간의 행위의 공로를 부인하고 신학의 모든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신중심적 동기에 기초해 있다. 리처드 왓슨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이라는 슬로건은 칼빈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게 루터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바르게 주장한다. 로마 가톨릭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 중 인간 편 극단에 치우친 신학을 가르는데, 가톨릭의 인간 중심적 종교를 깨뜨린 루터의 무기는 하나님 중심적 극단성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루터 신학의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 극단성이 초래한 문제는, 개신교 신학이 복음과 율법, 칭의와 성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양자의 관계를 조화롭게 가르치지 못하고 전자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성경적 균형과 조화를 결여하게 된 것이다. 일례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 거기에는 복음의 성격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야고보서가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경성을 부인했다. "나는 야고보서를 불쏘시개로 사용할 것이다", "우리 비텐베르크 대학은 야고보서를 추방해버려야 한다"라는 극단적 태도를 보였고, 실제로 야고보서를 구약 외경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리스도인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1525)라는 설교에서는 "우리는 모세의 명령을 따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세는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의 다스림은 끝났다. 그는 이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심지어 십계명도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루터가 복음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율법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율법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결과는, 그의 추종자 요한 아그리콜라(Johann Agricola)를 포함해 오늘날까지 많은 개신교인에게 율법무용론적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아그리콜라는 심지어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죄 속에서도 거룩하다", "여러분이 매춘부, 불량배, 간음자라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에 깊이 빠져 있어도, 믿음만 있다면 여전히 축복 속에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제프리 만은 루터의 설교 2,300편을 연구한 후, "루터는 언제나 율법과 복음 모두를 설교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 언제나 우선순위에 둔 것은 로마 가톨릭의 율법주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 복음을 훨씬 더 강하게 처방"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한다. 또한 루터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율법의 필요성을 결코 부인한 적이 없음에도 그가 가르친 율법의 역할은 언제나 죄를 정죄하는 부정적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결과 필립 샤프는 “루터 스스로가 후년에 복음의 자유의 오용 및 비텐베르크와 작센 지방 전체에 걸친 개탄할 만한 도덕적 상태에 대해 자주 쓰라린 불만을 터뜨렸을” 정도로 루터의 종교개혁에는 “반(反)율법주의적 경향과 공중 도덕의 퇴보가 수반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최주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일어선 종교개혁 진영은 엉뚱한 복병을 만나게 된다.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개신교 진영 내부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방종과 무식함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개혁자들의 구호인 ‘복음의 자유’를 빌미로 집 안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것이다. … 개혁자들은 복음의 자유, 해방, 모든 신자의 평등한 만인사제직을 핵심 가치로 주장했지만, 현 장에서는 교리의 오해와 오용으로 이어졌고, 왜곡된 ‘복음의 자유’로 인해 율법 기능은 철폐되어 세상 권위와 질서는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로 인해 개신교 성직자들의 부패와 게으름, 교리에 대한 무지가 만연했고, 도저히 성직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 해이와 방종의 사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목사들의 사정이 이러한데 일반 신자들은 오죽했을까? 목회자든 일반 신자든 가릴 것 없이 신앙과 삶의 규칙은 엉망이 되어 가기 시작했다. … 성직자와 일반 신자들은 모든 제약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 꼴이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교회의 징계를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그로부터 두 세기가 지난 뒤 영국의 존 웨슬리는 “교회에는 세례받은 밥버러지, 세례받은 술주정뱅이, 세례받은 거짓말쟁이, 욕쟁이, 험담꾼, 세례받은 오입쟁이, 도둑, 착취자가 얼마나 많은가?”라며 한탄했다. 많은 개신교인이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지옥이 천국에서 먼 만큼이나 거룩함과 거리가 멀었고”,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교파, 기독교 도시, 기독교 가정에서 셀 수 없는 악행이 일상화된 것을 목격한 것이다.

성경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후 11:14)고 말씀한다. 이런 일은 신학에서도 일어나는데, 사탄이 신학으로 장난을 치면, 신자가 짓는 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궤변(롬 6:1, 15)이 성행하게 된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유1:4) 것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 은혜를, 인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에 문제없다는 태만과 방종의 허가로 변질시킨 신학은, 오늘날 한국에서도 개신교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사회에서의 존립 근거를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 신학의 한계와 약점으로 인해, 개신교를 성경적 균형과 조화로 회복시키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존 웨슬리의 신학이라 할 수 있다.

III. 존 웨슬리의 신학

웨슬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두 세기 이후의 사람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루터의 강조점을 물려받으면서도, 동시에 루터 신학의 신중심적 극단성과 율법에 대한 부정적 이해로 인해 태만과 방종에 빠진 개신교회를 성경적 거룩함으로, 신중심적 극단성을 띠게 된 개신교 신학을 성경적 균형과 조화로 회복시키고자 노력했다. 웨슬리 신학은 역사 속 다양한 기독교 전통에 각기 흩어져 존재하던 성경적 진리의 파편들을 녹여 창조적으로 종합해 루터가 터부시하고 배제해버린 성경적 진리의 중요한 요소를 개신교 신학 내에 다시 회복시키는 성경적 균형을 특징으로 한다.

1. 율법관

웨슬리 역시 루터처럼 율법을 허용된 영역과 허용되지 않는 영역을 구분하는 울타리로, 죄를 허용된 영역에서 살아야 할 인간이 울타리를 넘어 금지된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넘어서는 안 될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영역에서 살고 있는 죄인이기에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인을 정죄함으로 구원의 필요성을 일깨운다는 루터의 가르침에 웨슬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의 전부인가? 만약 구원이 없다면 “율법은 항상 정죄한다”는 주장은 언제나 옳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변화된 본성을 주신다. 웨슬리는 이를 달리 표현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으로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에 새겨진다. 그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고도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신다는 것은, 과거에 주시지 않았던 새로운 율법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신자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죄 된 본성과는 맞지 않는 이질적인 것으로 경험한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은 율법을 혐오해 율법과 죄인 사이에는 반목과 적개심이 존재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녀 삼으시는 사랑을 경험하면, 율법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하고 감사하며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율법은 항상 죄를 정죄하고 복음은 죄를 용서하는 변증법적 관계(Dialectic)로만 한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상관관계(Correlation)가 되도록 바꾸어 놓아, 구원받은 신자는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에서도 신자를 성결과 행복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 복음 안에서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결과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롬 3:31) 율법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역사한다.

2. 신론

웨슬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는 거룩과 사랑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즉 (1) 죄로부터의 분리와 순결을 의미하는 거룩과 (2) 죄인에게 먼저 다가올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용서하시면서 더 깊은 친교로 이끄시는 사랑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 거룩한 사랑이 죄인에게 경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죄인에게 경험될 때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무정형의 은혜"(amorphous grace)가 아니라, 거룩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진 은혜"(normed grace)로 다가온다. 따라서 은혜는 죄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또 가능하게 하신다. 따라서 은혜는 칭의로 그치지 않고, 중생과 성화를 포함한다. 또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포함한다.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태만과 방종이 아닌,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웨슬리에 의하면, 모든 것을 단독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반응을 원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기초해 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아 "나무 조각이나 돌덩어리같이" 도덕적으로 무능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간을 강제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아닌 충만한 지혜와 자비와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가르치는

것이, 노예의지를 지닌 인간을 이중예정과 불가항력적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본질은 인간을 하나님께 반응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폄하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에게 회복시키신 인격성과 책임성을 바르게 발휘해 하나님과 신앙과 순종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는 데 있기 때문이다. 웨슬리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루터의 이중예정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중 사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성도의 견인 교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강조해 성경적 균형을 벗어난 극단적인 가르침이다.

3. 기독론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이라는 삼중 직분으로 가르쳤다. (1) 예언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거룩함의 기준을 세우셨다. (2) 제사장 그리스도는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 용서를 가능하게 하셨다. (3) 왕 되신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각 신자를 다스리심으로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근거해 평가하면,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의 죄를 가져가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행복한 교환이나 이중전가를 중심으로 하는 루터의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만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만 강조하면, 신자는 늘 죄를 짓고 용서받는 삶을 반복할 뿐, 거룩함의 기준을 깨닫고,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 전체를 통해 더 넓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웨슬리가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통해 거룩함을 기준을 충족하게 하심 모두를 가르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신자의 순종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순종의 동기와 방향과 능력을 부여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된다.

4. 성령론

웨슬리는 루터 못지않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이 율법과 복음을 깨달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율법이 죄인을 깨뜨리는 천둥, 번개가 되고 쇠망치가 되며, 복음이 나를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계시와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웨슬리는, 루터가 부인한, 성령의 오순절적 능력 즉 성령 세례를 통해 이 세상에서 성결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가능함을 가르쳤다. 루터에게서 복음을 통한 성령의 위로는, 신자라도 죄인이어서 이 세상에서 결코 성결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루터에게 성령의 위로는 죄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죄에 패배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일깨워 주심을 통한 위로인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구약에 기록된 새언약의 예언(신 30:6, 11-14; 렘 31:33; 겔 36:25-27)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으신다는 요엘서의 예언(욜 2:28-29)을 신약의 오순절과 연결했다. 또 성령은 신자의 “마음을 깨끗이”(행 15:9) 하실 뿐 아니라, 각종 은사와 복음 증거의 능력을 부어주심(행 1:8; 2:14-21)을 강조했다. 웨슬리는 신자가 받는 제2차적 은혜로서 성령의 능력세례를 분명히 가르칠 뿐 아니라, 그것을 성결의 은혜와 동일시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입장은 은사중지론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 사도적 영감을 받았고, 교황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직통계시 주장 및 가톨릭 교회가 꾸며낸 기적들로 혹세무민하는 것에 대항하는 논증으로 은사중지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웨슬리는 “나는 신약에서든 구약에서든 … 기적이 사도 시대 … 혹은 특정 시기에 한정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어떤 성경 구절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어느 시대, 어느 순간, 어떤 정도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 행하시기를 멈추실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은사중지론에 반대해 콘스탄틴 이후 시대 “기독교 교회 내에서 성령의 은사가 더는 발견되지 않는 진정한 이유”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식어서 …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은사중지론이 사실이 아니며 교회에 은사가 덜 나타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니엘 제닝스는 웨슬리가 53년간의 사역에서 경험한 초자연적 사건들을 일지, 편지, 설교 등에서 발췌해 『존 웨슬리와 초자연적 사건』(The Supernatural Occurrences of John Wesley, 2005)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 내용에는 축귀와 같은 귀신과의 영적 전쟁 16회, 자신과 지인, 심지어 말에게 일어난 신유의 체험 17회, 쓰러짐과 입신 19회,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룩한 웃음과 귀신에 사로잡힌 사악한 웃음 12회, 성령의 임재에

압도된 결과로서 마음의 괴로움과 회개, 위로, 확신, 진동 등 14회, 거짓 예언과 참 예언 11회, 꿈과 환상 30회, 악인으로부터의 초자연적 보호 10회, 천사에 의한 인도와 보호 9회, 그 외에도 기도에 대한 많은 기적적 응답, 성령세례의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웨슬리가 읽었던 조너선 에드워즈의 글과 조지 휫필드의 사역에서는 웨슬리 자신의 사역 못지 않게 많은 은사와 기적이 동반되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루터란 경건주의자들과 청교도들은 루터와 칼빈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한 신자의 변화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신유와 은사 이해에서 은사중지론을 뛰어넘었다. 그럼에도 루터란 전통과 개혁주의 전통은 교리적으로는 루터, 칼빈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한다. 교회사에서 개신교가 은사중지론을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과 풍성한 은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한 것은 존 웨슬리였다.

웨슬리의 성령론이 이처럼 오순절적 능력과 은사를 강조함에도 광신주의로 흐르지 않은 것은, 그의 성령론은 언제나 성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 신자의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신자의 본성의 새로운 구성요소가 되신다. 외부로부터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서 루터의 성화론과 비교해, 웨슬리에게 성화는 성품과 능력의 변화를 가져오는 신자 속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신자 자신의 능동적 의라는 관점에서 훨씬 진전된 개념이다. 신자 속에서 본성을 변화시키고 의의 동력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능력부으심을 바탕으로 성령 충만한 신자는 성결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친 점에서 웨슬리 성령론은 종교개혁과 경건주의운동, 성결운동, 오순절운동의 강조점을 모두 포괄한다.

5. 구원론

하나님의 은혜는 죄 용서에서 그치지 않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며 복음을 전파할 능력까지 주시므로, 웨슬리의 구원론은 칭의와 성화의 이중적 강조점을 지닌다. 또한 웨슬리의 구원론은 믿음과 사랑의 이중적 강조점을 지닌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믿음은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지만, 이 평안은 자칫 나태와 방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은 나태와 방종에 빠질 수 없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약 2:22)라는 말씀처럼, 비록 믿음이 행위를 낳기에 행위가 믿음에 의존하더라도, 행위에는 믿음을 변질되지 않게 지켜주고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는 그 자체만의 역할이 있다. 따라서 루터처럼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경시하는 것은 태만과 방종으로 인해 결국 믿음 자체를 연약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갈 5:6)일 때라야 참된 믿음이며, 신자는 그 믿음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6. 인간론

웨슬리는 루터 못지않게 원죄와 인간의 타락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선행은총(또는 일반은총)을 베풀고 계심을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은총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미 역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행은총을 통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종교성(롬 1:19-20), 양심을 통한 죄에 대한 자각(롬 2:14-15), 성령의 열매를 닮은 어느 정도의 선한 성품(갈 5:22-23),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 3:11), 의지의 자유를 통해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눅 10:42)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간의 인격성을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부여하신 것이다.

루터는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공로사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부인했으나,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의지의 자유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신자가 노예의지론적 숙명론과 죄에 대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게 한다고 보았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본질은 인간을 하나님께 반응조차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낮추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키신 능력과 기능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있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아직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한 신자에게 죄가 남아있고, 그런 신자에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실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웨슬리가 루터에게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서 죄 된 본성을 제거하시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웨슬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죄 짓게 하심으로써 겸손케 하실 수는 없기에, "누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을 필연성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여 …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내시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겸손케 하시는 방법은 죄 속에 머물게 하심으로가 아니라, 인간을 연약성, 질병, 고통, 우둔함, 혼동, 실수 등에 머물게 하심으로다. 루터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은 주로 정죄 받던 신자의 양심에 복음을 일깨워 위로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양심 뿐 아니라 의지에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고 행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작용하신다.

■ 나가는 말: 요약과 분석

루터와 웨슬리의 신학을 전반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학을 일차적으로 그들이 속한 시대와 종교라는 구체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루터 신학의 역사적 맥락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에 빠진 중세 가톨릭교회가 그 배경이 되고, 그것에 대항한 루터 신학의 특징은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중심적 신학이다. 이에 비해 웨슬리가 바로잡으려 노력한 것은 로마 가톨릭의 율법주의와 종교개혁자들의 부정적 율법관이 야기한 개신교의 율법무용론적 경향 모두이며, 그 양자를 바로잡는 웨슬리 신학의 특징은 성경적 균형과 조화라 할 수 있다.

루터는 율법주의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의 의를 내세워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의 독립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기 우상화와 교만을 경계하려 했다면, 웨슬리는 율법주의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교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을 빌미로 태만과 방종, 거룩하지 못한 성품과 삶, 율법무용론으로 나아가려는 실천적 무신론을 함께 경계했다.

루터는 신학 전반에서와 각 주제들에서 인간의 어떤 행함과 헌신과 순종도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인간 삶과 구원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신중심적 신학을 건설하고자 했다면, 웨슬리는 '오직 은혜'에 대한 종교개혁적 강조를 수용하면서도, 은혜의 어떤 요소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을 약화시켜 태만과 방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핑계가 될 수 없고, 은혜는 오히려 순종의 동기와 능력과 목표를 부여함을 강조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토대 위에서 인간의 책임과 신자의 거룩한 삶을 강조했다. 웨슬리 신학은 루터 신학의 수용하면서도 그 약점을 수정해 은혜가 신자의 거룩한 삶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한 것이다.

만약 루터가 아닌 웨슬리가 종교개혁을 시도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웨슬리 신학이 로마 가톨릭 신학과 어떻게 다른지 잘 구별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웨슬리 신학에는 루터 신학의 전매특허와 같은 과격함과 극단성이 부족하다. 사람들은 루터식 흑백논리와 배타적 양자택일의 장점인 선명함과 확고함, 시원시원함이 없는 웨슬리 신학을, 율법과 복음, 가톨릭과 개신교를 뒤섞은 애매모호한 주장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루터는 다른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루터의 모든 글은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만의 독특한 신학적 사고의 선명함과 탁월함을 드러낸다. 그 점에서 과거만이 아닌 오늘날조차도 루터가 없다면 개신교 신학은 그 근본 토대가 매우 취약해질 것이다. 루터 신학은 칼빈주의와 웨슬리안 전통을 포함해 개신교 내 다양한 전통 모두의 신학적 토대이자 공통분모다. 모든 개신교회는 루터 신학에서 영속적으로 유익을 얻고 있다.

한편, 만약 웨슬리가 없었다면 개신교 신학은 지금과 같은 성경적 균형을 지닐 수 있었을까? 또 개신교회는 지금같이 성령의 역동적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 중세 가톨릭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 사이에서 인간 편 극단에 치우친 구원론을 가르쳤다. 루터는 가톨릭의 극단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과 정반대의 극단에서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략함으로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 가톨릭의 인간 중심적 극단성을 깨뜨린 루터의 무기는 하나님 중심적 극단성인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루터 신학은 앞으로 웨슬리 신학의 특징이 될 성경적 균형과 조화를 결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웨슬리를 사용해 역사 속 기독교의 다양한 전통에 각기 흩어져 존재하던 성경적 진리의 파편들을 녹여 창조적으로 종합하게 하셨고, 그 결과 웨슬리 신학은 루터가 터부시하고 배제해버린 성경적 진리의 중요한 요소를 개신교 신학 내에 다시 회복시키는 성경적 균형을 지니게 된다. 웨슬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루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웨슬리는 루터가 멈춘 곳에서 더 나아가 루터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했다. 그 점에서 필자는 웨슬리에게 누구보다 감사하면서 낙원에서 그를 반겼을 사람이 루터였을 것이라 믿는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더 이상 자신의 신학전통에만 갇혀 웨슬리 신학과 웨슬리안 전통을 터부시하거나 이단시해,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통해 개신교에 회복시키신 성경적 은혜와 진리,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용하신 다른 모든 신학 전통들을 디딤돌로 삼아 성경적으로 가장 균형 있고 풍성하며 건전한 개신교 신학을 웨슬리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

개신교를 다시금 개혁할 충분한 역량을 갖춘, 가장 성경적이고 건전하며 능력 있는 신학전통은 바로 웨슬리안 신학전통일 것이다.